

땅값에 발목잡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컨소시엄 업체 1조원대 제안
금타 “이전비용 2조원 안팎”
공장 이전까지 진통 불가피
송정역 일대 개발계획도 차질

광주·전남 경계에 걸쳐 있는 함평 빛그린 산단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과 맞물려 송정역 일대를 교통·물류 허브,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금호타이어측은 부지 매각을 통해 2조원대 이전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장 이전을 빌미로 땅 장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공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호타이어와 투자은행 업계,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측은 광주공장 부지 매각 및 개발사업 공고를 냈으며,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참여 컨소시엄은 미래에셋증권·현대건설·중흥도건 컨소시엄, 삼성증권·제일건설·DL이앤씨, 부국증권·호반건설 등 3곳이다. 이들은 지난 9월 금호타이어 측에 각각 1조원대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금호타이어측은 이들 컨소시엄에 ‘애초 제시한 사업 금액으로는 이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금액을 높여 다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액을 변경해 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선 일단 공장 이전과 신축을 위해서는 2조원 대의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974년 설립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으며, 전기가 시대로의 전환 등에 따른 신규 기술 도입, 생산설비 교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공장 이전 및 신축에 투입될 비용만 1조 2000억원대로,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1조원대 매각 대금으로는 공장 이전조차 어려운 입장이라는



불 밝힌 크리스마스 조명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 정문 앞이 화려한 성탄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재개하는 광주신세계의 ‘크리스마스 점등’은 내년 1월9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게 금호타이어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그동안 밀린 임금 2133억원도 지급해야 하는데, 2023년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가 도래해 부지 매각 대금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 보유액이 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까지 확보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일각에선 부지 매각에 차질이 빚어져 경영정상화에 나서지 못할 경우 회사의 존폐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

저나오고 있다. 문제는 광주공장 부지 매각에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공장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소요될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용도변경 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와 공장 이전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업 착수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처럼 개발사업 시기가 불투명하고, 사업수익조차 가능할 수 없는 탓에 컨소시엄들이 광주공장 부지 매각 금액을 높여 개발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의 개발 만큼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이다. 금호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의 조속한 협의 통한 공장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인 금호타이어측에서 공장 이전 부지를 계약하는 등 이전 계획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만 행정적인 협의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지난 8월 회사가 빛그린 산단으로 옮기기를 희망해 그 입장을 수용했으며, 이후 어떠한 입장이나 협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재난지원금 설 전후 지급 가능할까?

광주시가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의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용성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예산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 단체와 5·18 기념재단,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등도 이날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의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혔

시의회 심의 앞두고 총력전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다. 행자위는 17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설 명절 전후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주시

민 1인당(총 148만명)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에서 큰 부담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자위는 전원 합의로 조례·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미·중 정상 ‘대만’ 충돌

시진핑·바이든 첫 회담 ‘194분’

“현상변경 반대” “불장난 타죽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선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고,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시도 등 ‘레드라인’이라는 표현까지 거론하며 단호한 조치 가능성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의 첫 대자로, 미국 동부시간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시간 16일 오전에 휴식을 빼고 총 194분간 화상으로 열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대만 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정의와 최선을 위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중국의 관행은 물론 더 광범위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하지만 양대 초강대국인 미중 간 갈등 상황을 감안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위협을 관리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쟁이 충돌로 옮겨가지 않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은 바다를 향해하는 거센 2척”이라며 “풍랑 속에 같이 나아가기 위해 양국은 키를 꼭 잡고 항로 이탈이나 실속(속도 상실),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시를 빛낸 예술가 - 베를린 케테 콜비츠 ▶11면
신 전남인 - 여수 화태마을 정근영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